

산림문제 재 음미

류택규 / 원광대 교수

한반도는 남북한을 통틀어 22만km²밖에 되지 않는 좁은 영역에(전육지의 1/700) 7천만(세계인구 1/70)이 모여 살고 있는 집중지역이다. 이는 아무리 유능한 통치자나 지도자가 나온다해도 우리민족이 벗어날수 없는 국토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경사산지가 72%나 된다. (남한 65.2%) 이는 효율적인 국토관리면에서 산지를 무시한 어떠한 계획이나 정책도 국가의 경제발전과 안정을 기할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차도 다 아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은 국가통치의 기본을 치산치수에 두었다는 것은 많은 기록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일체의 목재수탈과 8. 15광복과 6. 25동란기에 피난민의 민생고 해소방편으로 과거 미림을 마구잡이 벌채 이용하느로서 일시에 옛부터 불려오던 금수강산을 사막 같이 헐벗었고 매년 장마철이면 홍수와 유실토사로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문전옥답이 파묻히고 가옥이 떠내려가므로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었던것이 과거 사진이나 재해기록을 넘기면서 확인할수 있었고 임업계 원로이신 조태웅 선생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임업의 선각자이

신 고 현신규 박사께서는 건국초기에 산림복구에 대해 위정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호소하셨고 선진제국에 알려 기술지원과 경제협조를 얻어 냈으며 이로써 모든 국민은 산림녹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되었고 국가관과 사명감이 충일한 임업인은 무한한 희생으로 세계인이 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어려운 녹화사업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에는 그당시 군관민이 혼연일체가되어 애림녹화 절대녹화 구호하에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다루며 기술개발과 실행을 존중하는 국민정성의 결과이었던 것이다. 혹자는 각 가정의 연탄보급이 녹화 성공의 전부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목재채취가 전혀없는 세계도처의 황폐지는 수백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겨져 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연탄연료가 녹화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도움을 주었음을 알고 있다.

최근에 산이 제모습을 찾아가니까 지난 황폐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85%의 목재를 외국산목재로 충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산림에 쓸모있는 나무가 없다고 원망의 소리가 세간에 자자하다. 또 산에 숲이 조성되면 임지는 비옥해지고 나무는 더욱 잘 자라게 마련인데 수풀이 아름다워지고 맑은

물이 흐르게 되니까 전국의 경치가 수려한 산림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의적인 산림취급을 억제하고 산주에게는 아무보상없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를 챙기고 있으니 당초 영림계획은 무모하게 되어 그 책임을 산림공무원에게 물어와 고통받고 있다. 이해에 밝은 산주는 산지의 생산력이 향상되니까 현재 임목을 베어내고 축산을 위한 초지 과수원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근교나 도로변 산림을 택지 공장용지 골프장을 비롯한 위락시설용지로 전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산림관계법규에 대한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생각할수 없었던 산지및 산림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문제로 해서 산림청이나 임업공무원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14일 산림청은 농림수산부 내국으로 흡수개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조정시안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성안하였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200만 임업인은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기구축소로 인한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임업은 겨우 재해위협에서 벗어나 제대로 산림사업으로 국가경제및 국민복지에 기여할수 있는 기틀이 잡혀가고 있으나 국토의 종합적인 관리이용과 아름다운 금수강산 건설에 이바지하는 목재자원의 증진은 물론 균형된 수자원의 공급, 국토의 풍치조

성, 국민의 보건향상, 영세 산촌민의 산간마을 정착을 위한 소득작목개발등 산적한 과제들을 남겨놓고, 이 시점에 자연히 위축소홀해질수 밖에 없는 산림행정기구가 축소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과연 그것이 선진국가건설에 이바지 하는 길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만에하나라도 행개위원들이 취약한 임업계를 간과한 나머지 기구개편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 않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영원히 임업에 종사할 임업인이나 이에 관심을 가진 국민 모두에게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

차제에 첨언하고 싶은것은 복잡다기한 산지관리는 임업전문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국가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며 산지나 산림을 현재와같이 산림청외에도 내무부 자연보호, 국방부 군사보호지, 농림수산부 산지개간, 건설부의 녹지보호 공원업무, 문공부의 수목문화재관리, 환경청의 환경보호관리등 산지및 산림에 대한 각부서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여 산림부나 환경부로 승격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현재의 산림청을 폐지하지 말고 이업무만이라도 일괄되게 처리될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업무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지적하고 싶다.

힘모아 가꾼 산림 자원조성 서두르자